



2019 AUTUMN VOL. 98



**INSIDE**

**이수인의 이중생활**

캠핑, 소통과 불명의 힐링

**팀업뽀뽀**

이수AMC CS팀

**OUTSIDE**

**이수 테이블**

가성비 최강의 골목 식당

**스페셜 리포트**

병맛의 반란, B급 문화의 힘

# Contents

# 01

## Cover story



### 표지 모델

왼쪽부터 윤정일 과장, 조현택 대리, 전준용 부장, 황효정 대리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붉게 일렁이는 모닥불 그리고 평소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 속에서 이수 캠퍼들의 가을이 깊어간다.

# 04

## INSIDE

### 05 Focus & News

#### 10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 12 이슈를 잡아라

이수그룹 차세대 비전사업

중국 신장성 이닝 스마트팜

#### 16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 20 이수인의 이중생활

소통과 불명의 힐링, 캠핑클럽

#### 26 팀업뽀뽀

이수AMC CS팀

#### 31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이효은 사원(이수엑사보드 영업파트)

이준경 사원(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 33

## OUTSIDE

### 34 이수 테이블

서민들의 4달러 밥집

가성비 최강의 골목 식당

### 38 스페셜 리포트

병맛의 반란

대중을 매료시킨 B급 문화의 힘

### 44 마이레알트립

여행은 사진이다!

인스타그램머블 트래블 스팟

### 51 이수의 PICK

팝음악의 본고장 미국,

K팝의 최대 격전지가 되다

### 57 Ombudsman

### 58 퀴즈 및 엽서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19년 가을호 통권 98호

발행일 2019년 10월 18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정희 02-590-6693

사보기자 이수화확(이정구·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김다혜)

이수건설(이진우)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엑사보드(박에스터) 이수엑사캠(박수영)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엑사보드 인천공장(심경미) 이수C&E(전선경)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우인재, 디자이너 조현경

인쇄 캠프로세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IN SIDE

## 김상범 회장, 계열사 현장 경영 브라운스톤 계양스카이 현장 방문 및 격려



김상범 회장은 지난 9월 5일,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계양스카이' 현장을 방문했다. 김상범 회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실무진으로부터 현장 및 주변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견본세대를 둘러보며 최고의 품질과 무사고 기원을 당부하였다. 김상범 회장은 또한 현장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계양스카이 아파트는 2020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면적 약 39,540㎡의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33층의 총 4개동 282가구 규모로 신축되고 있다.

쥬이수

2019 ISU  
Invitational Pro-Am  
골프대회 개최



이수 프로암 골프대회가 지난 9월 28일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주요 고객사 및 금융기관 등의 내빈과 김상범 회장 이하 그룹 임원들 그리고 KPGA 프로가 함께 조를 이루어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연회와 함께 시상식을 갖는 등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수화학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표기업  
선정



이수화학이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폐기물·수도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컨퍼런스'에서 타 업종 부문 우수사례 발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수화학은 9월 6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개최된 환경부 컨퍼런스에서 자체 생산 대신 수소의 외부 조달을 결정한 일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회사가 시행했던 우수사례를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페타시스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



이수페타시스 나눔 봉사단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대구 달성군중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추석맞이 송편 나눔 DAY' 행사를 진행했다. 직원 7명과 어르신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는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등 정서적 지원을 통한 소외감 완화와 지역 주민과의 연대감을 증대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수시스템

창립 23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수시스템은 지난 8월 2일,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이수시스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축하는 자리였다. 행사 당일 이수시스템 임직원들은 영화관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공유사항을 청취하고 외부 노무사를 초청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였다.



이수앱지스



항암 신약 임상 1상 결과 발표

이수앱지스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유럽종양학회 (ESMO) 2019 연례회의'에서 ErbB3 타겟의 항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ISU104'의 임상 1상 Part 1 결과를 발표했다. 이수앱지스의 이번 임상 1상 Part 1 결과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ISU104가 혁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창업투자



가을 개봉작 소개

이수창업투자가 올가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연기파 배우 설경구, 조진웅의 퍼펙트 케미를 예고하는 인생 반전 코미디 <퍼펙트맨>은 신선한 웃음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래원과 공효진이 16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는 <가장 보통의 연애>는 두 남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현실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이수C&E



하반기 영화 라인업 소개

이수C&E가 영화 <뷰티풀 보이>로 관객들을 만난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원작인 <뷰티풀 보이>는 약물중독에 빠진 아들과 아버지의 감동 실화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제작에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휴 잭맨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미싱 링크>, 판타지 영화 <스케어리 스토리즈 투 텔 인 더 다크> 등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수엑사켐



이타이닝社 한국 판매 독점권 획득

지난 8월 24일 이수엑사켐이 이타이닝社의 한국 판매 독점권을 확보했다. 이수엑사켐은 향후 이타이닝社의 다양한 석유 제품에 대한 한국 독점 판매권 및 해외 수출 시장 판매권을 갖게 되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신규 비즈니스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고법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저 자 야마구치 슈  
출판사 다산북스



“

누구나 한 번쯤 철학을 공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대 철학자들의 고리타분한 주장 앞에서 좌절한 추억이 떠오른다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탐독하길 바란다. 이 책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유가 삶과 비즈니스에 ‘혁신’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다.

”



오늘날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누가 뭐래도 ‘혁신’이다.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은 ‘상식을 의심하는’ 사고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서 떨어놓고 의심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식을 판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바로 이 안목을 길러 주는 것이 ‘철학’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50가지 철학과 사상을 담은 이 책은 철학의 쓸모를 새롭게 조명하는 실용적 철학 사용설명서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를 공부한 저자 야마구치 슈는 세계 1위 경영·인사 컨설팅 기업 콘페리헤이그룹의 시니어 파트너이다. 그는 사람들이 철학을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철학과 비즈니스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철학적 사고법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일 것이다.

이 책은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주목하고 있다.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고자 할 때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르상티망’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 때는 에드먼드 후설의 ‘에포케’를 처방하는 식이다. 일과 삶의 모든 과제가 철학으로 해결되는 것.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철학의 개념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비즈니스 전략은 물론 일상의 고민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고법을 얻을 수 있다.

불확실한 시대에 형체가 불분명한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현대인의 숙명이다. 알팍한 처세와 임기응변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다. 철학을 배움으로써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 본 코너 추천도서는 향후 이수그룹 러닝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이수그룹 차세대 비전사업

# 중국 신장성 이닝 스마트팜 본격 가동

이수그룹의 차세대 비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이 지난 9월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신장성에 완공된 이닝 스마트팜에서는 향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에 수출할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될 예정이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 중국 신장성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이수그룹 스마트팜이 지난 9월 말 중국 신장성 이닝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스마트팜 시설의 완공과 함께 작물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12월 말에는 첫 수확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그에 앞서 중국 내수판매 및 수출을 위해 11월부터 프리 마케팅(Pre-Marketing)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 대도시 유통채널을 비롯해 러시

아와 중앙아시아 바이어 등을 만나 협상하고, 아울러 중국 및 주변국에서 개최되는 과채류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석하여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작물을 홍보하게 된다. 현재 중국 현지 브랜드 개발 업체와 협력하여 과채류 브랜드 개발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목표 지역인 중국 대도시 및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 브랜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국 신장성 이닝 스마트팜 시공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관계자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최첨단 농장이다.

### 정보통신기술로 탄생한 고품질 작물

스마트팜이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농작물의 재배환경을 원격 및 자동으로 관리하는 최첨단 농장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작물의 정확한 생리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양액 공급을 비롯해 광량, 온도, CO2 조절 등을 통해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 스마트팜 운용의 핵심 기술. 각각의 작물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므로 전통적인 재배법에 비해 보다 고품질의 작물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등 매우 월등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스마트팜은 매년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그룹은 이닝 스마트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온실시공 전문 기업인 한가람포닉스를 인수했다. 또한 이수시스템 주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협력하여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시공부터 재배 및 운영 등 관련 산업의 밸류 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연간 1,400톤의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

스마트팜이 위치하는 신장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4계절이 뚜렷하고 광량이 풍부하며 일교차가 커 과채류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팜의 중국 현지 파트너인 룡군사는 신장 지역의 대표적인 농업 선도 기업으로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닝 스마트팜에서는 연간 1,400톤의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예정이다.

의도 2배 면적인 530헥타아르 규모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묘목, 과수, 생태농장 등 농업부문과 함께 건설, 주택, 인테리어, 목재 가공 등 건설부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팜 운용과 유지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이다.

이닝 스마트팜에서는 향후 연간 1,400톤 가량의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이 재배될 예정이다. 방울토마토는 중국 내수 수요가 풍부하고 대 토마토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웰빙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생식을 할 수 있는 고급 과채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파프리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많다. 두 지역의 기후 여건 상, 많은 물

량의 파프리카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닝 스마트팜이 파프리카 수출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 과채류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에 유리한 과채류로 전환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도 가능하다.

### 스마트팜 시장을 선점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수그룹은 향후 대도시 인근에 스마트팜 단지 건설, 협력 농가 확보 및 과채류 구매 후 자체 브랜드 판매, 중국 내 스마트팜 건설 수주와 이에 따른 기업형·농가형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이닝 스마트팜을 모델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스마트팜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재배 운영 관리를 통한 현대화 정밀농업기술을 보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팜의 경영 영역을 선점 및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 Q & A

톡·톡·톡  
사이다 상담소

##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렵게 느꼈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동료와 후배가 해결해주는 알쏭달쏭한 고민들.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에는 누구나 평소보다 조금 센치해지는 법이잖아요. 이수가족을 위한 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 Q

## 갑자기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될 때, 기분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상현 부장(이수화학 시스템경영팀)



박진근 사원(이수화학 기획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제창한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출전과 같은 거창한 목표가 없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되새겨 볼 법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이 말을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갑자기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된다는 건 신체적으로 피로하거나 혹은 평소에 신체활동이 부족한 점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되는 날에는 반드시 숙면을 취해 피로회복을 꾀하거나, 잠시라도 짬을 내어 외부로 나가서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단지 신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오는 정신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에 잘 읽지 않던 시집을 읽어보는 식으로 새로움을 찾다 보면 우울하거나, 다운되는 기분 자체를 잊게 되지 않을까요? 제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기분전환법이 모두 합쳐진 방법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며 신체활동에 집중한다면 어느덧 우울함은 사라지고 저절로 기분전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홍권 사원(주)이수 브랜드전략팀

언젠가 신문에서 본 칼럼에 따르면 친구가 고민에 빠져있을 때,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이죠 “그땐 네가 그러면 안되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나니까 이런 말해주는 거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바로 그 갑분싸의 순간, 조언은 갈등이 되어버리죠. 친구가 원했던 것은 합리적인 판단도, 정확한 해결방법도 아닌 ‘이해와 ‘공감’이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업무상의 문제에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해결방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논리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후배 직원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기에 앞서, 그 문제가 왜 고민인지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공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옥상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우거나 혹은 퇴근 후 술잔을 기울이며 후배의 묵묵히 고민을 들어준다면 그 보다 좋은 조언과 위로는 없지 않을까요.

선배님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용기를 얻은 후배가 스스로 답을 찾으며 성장해 가는 과정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와 ‘공감’ 이후에 슬쩍 흘러주시는 해결방법도 찰떡같이 받아 소화하는 우리는 ‘통하는·동반하는·성장하는’ 이수인이니까요.

**직장 선배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힘이 되나요? 도움 될 만한 조언, 위로를 알고 싶습니다.**

한성희 부장(이수건설 브라운스톤하이포레)



정윤경 사원(이수엑스캠 영업팀)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역시 한 가정의 딸이기에 부장님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와 고민에 백퍼센트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루는 곧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저는 잊혀지지 않을 기념사진을 남겨보시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릴 때 따님과 함께 사진 찍은 장소 중 한 곳을 다시 찾아가 보세요.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라면 더욱 좋아요. 주변 풍경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느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딸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라고 물으면 해맑게 웃으며 “아빠!”라고 대답하던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를 견뎌내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 옆에 선 모습은 많은 감동을 주겠지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진 속의 그때 그 모습을 따라하다 보면 따님이 아이였을 때처럼 서로 장난도 치고 어리광도 부리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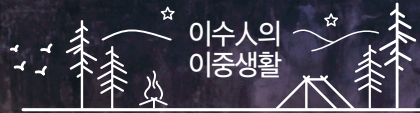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사진을 찍고난 뒤 저녁에는 근사한 곳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털어놓는 하루가 된다면, 아마도 평생 추억이 될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로 남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생 딸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황태진 부장(이수시스템 인프라사업팀)







# 자연에 사는 이수 캠핑클럽 소통과 불멍으로 힐링해요



왼쪽부터 황효정 대리, 전준용 부장, 조현택 대리, 윤정일 과장

가을은 1년 중 캠핑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일상에 치여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 마주 앉은 사람과의 정은 더욱 돈독해지고, 빨강계 달아오른 모닥불을 바라보는 '불멍'은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치유의 의식이다. 캠핑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이수인들. 이수 캠핑클럽의 자연주의 힐링 노하우를 공개한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준용 부장** 안녕하세요 (썩)이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준용 부장입니다.

**윤정일 과장** 이수화학 안전환경2팀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윤정일 과장입니다. 직원들의 안전한 회사생활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효정 대리** 반갑습니다. 이수시스템 기획관리팀 황효정 대리입니다. 현재 자금 및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년째 이수시스템에 발도장을 찍고 있네요(웃음)

**조현택 대리** 안녕하세요. 이수건설 재경팀 조현택 대리라고 합니다. 재경팀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5년에 입사하여 어느덧 5년차가 되었습니다.

### 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준용 부장** 어느 주말, 가족과 함께 양평으로 놀러 갔다가 가평에서 캠핑 중인 누님에게 잠깐 들렀습니다.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모닥불 앞의 여유가 너무 좋은 나머지 준비도 없이 1박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 날 곧바로 텐트와 기본적인 캠핑용품들을 갖추고 캠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일 과장** 결혼 후 딸아이와 놀아주고 싶지만, 막상 놀다 보면 5분 만에 녹다운되곤 했어요(웃음) 그래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나들이라도 가야겠다 싶어 집과 가까운 바닷가를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몽돌해변에 나가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 필요한 장비를 하나씩 구입하게 되었고 어느덧 차 트렁크가 캠핑용품으로 가득 차게 되었네요.

**황효정 대리** 구 남친이자 현 남편의 로망이 텐트 대신 차에서 먹고 자는 '차박'입니다. 처음에는 장비 없이 글램핑으로 몇 번 캠핑을 경험해봤는데, 누워서 풀벌레 우는 소리 듣는 것과 별을 감상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생각보다 빨리 차를 바꾸게 되었고, 장비를 하나씩 장만하면서 본격적으로 캠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현택 대리** 연애할 때 와이프가 캠핑이나 등산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해서 점수 좀 따려고 같이 다니게 계기가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캠핑 따라다니며 음식 해먹고 공기 좋은데 가서 친구들이랑 술도 한 잔하는 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결혼한 뒤에도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 아끼는 캠핑 장비를 하나만 꼽는다면?

**전준용 부장**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텐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즌이 겨울이거든요. 겨울 캠핑을 즐기



려면 거실 공간이 있는 텐트가 필요해요. 텐트 안에 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꼭 집처럼 아늑한 느낌이 들어 정말 좋아합니다. 벌써 10년 이상 사용해서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텐트가 곧 가족과의 좋은 추억이죠.

**윤정일 과장** 캠핑 체어가 아닐까 싶네요. 처음 구입할 때 고생 끝에 장만한 터라 더더욱 그래요. 인터넷 서핑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캠핑 의자를 발견했는데 모든 쇼핑몰에서 품절된 상태였거든요. 일주일 넘게 검색한 끝에 동일한 중고 제품을 찾았고 울산에서 대구까지 직접 발품을 팔아 구입했습니다. 이 의자를 시작으로 다른 캠핑 장비들도 하나둘 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캠핑을 시작한 시발점이 되는 장비이기도 해요.



“  
캠핑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 쌓기 놀이  
”  
전준용 부장

**황효정 대리** 저는 촬영을 위한 카메라 삼각대가 가장 중요해요. 캠핑하는 순간을 기록 하려면 사진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다녀와서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때의 추억들이 떠올라 기분도 좋아집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셀카를 찍거나 서로 찍어줄 때는 휴대폰으로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아름다운 풍경 역시 디카로 찍어야 제대로 담을 수 있답니다.

**조현택 대리** 저도 윤정일 과장님처럼 캠핑용 릴렉스 체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자만큼은 저에게 꼭 맞는 편안한 걸로 사려고 해요. 캠핑을 떠나서 해가 진 뒤에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음악을 듣고는 해요. 주변 풍경을 즐기며 맥주를 한 잔 하다보면 종종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릴렉스 체어가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 캠핑이 가져온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전준용 부장** 저는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큰 아이가 몸이 약해 폐렴에 자주 걸리곤 했는데 캠핑을 다니면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감사해요. 큰 아들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정일 과장** 제 경우에는 가족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화의 내용도 긍정적으로 변한 점인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는 아내와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딸아이 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좋아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예쁘다고 말할 때면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황효정 대리** 저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차박 캠핑을 할 때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많으면 절로 눈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명언도 있잖아요? 내가 만든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행위는 타인은 물론 자연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 생각하고 쓰레기는 꼭 되가져 오고 있습니다.

**조현택 대리** 삶이 가족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캠핑을 떠나면 와이프가 집에서 했던 일들은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 아내를 더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배려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가족에게 해줄 수 있어 힘이 들어도 더 재미있어요.

####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용 부장**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말에 캠핑 갈 생각 하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죠. 또 직장 내에서 친한 동료와 함께 캠핑을 다니며 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윤정일 과장** 안락한 집을 벗어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공기 맑고 풍경 좋은 장소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업무 성과에 대한 만족감은 배가 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캠핑을 통해 힐링 함으로써 한주간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주에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어 좋습니다.  
**황효정 대리** 저는 불멍 말고 초록멍을 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풀이나 나무, 강과 바다를 바라보며 멍때리는 거라거나 할까요. 예전에는 멍때리는 게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자연 속에서 실천해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들고 머리 속을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평일에는 꼭 조였던 마음을 캠핑장에서 느슨하게 풀어 두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몸과 마음을 충전하면서 새로운 평일을 맞이하기 위함이지요. 남편과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캠핑을 오랫동안 하려면 직장생활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요. (웃음)  
**조현택 대리** 사실 캠핑은 준비하는 과정이 피곤해



“  
가족과 대화하게 만드는 캠핑은 소통이다  
윤정일 과장  
”

요 그런데 업무를 마친 뒤 캠핑을 떠나면 그런 피곤 따위는 금세 잊게 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서 여유롭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캠핑을 즐기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나 할까요? 자연 속에서 여유를 되찾게 되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준용 부장** 지금껏 가장 좋았던 기억은 추운 겨울 아침, 정말 포근하고 따스한 기운 속에서 눈을 뜬 순간입니다. 밤새 눈이 펄펄 내린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 위를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다녔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 캠핑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

조현택 대리



**윤정일 과장** 저는 얼마 전 해변에서 본 귀여운 커플들이 생각나네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 두 쌍이 타프도 없이 띄약벌 아래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 두 분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굽고, 여자 분들은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 젊음이 너무 풋풋해 보이더라고요.

**황효정 대리**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무렵 조용한 강가에서 최적의 차박 장소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뉴시터였던 거예요.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밥을 해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미처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을 끄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운 채 뒤척였더니 차에서 큰소리로 ‘삐이이’하는 경고음에 나는 바람에 엄청난 눈총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뒤로는 절대 뉴시터에 가지 않습니다.(웃음)

**조현택 대리** 제 경우에는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연애할 때는 주로 지인들이 캠핑 하는 곳에 게스트로 참여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 임신한 아내와 함께 단 둘이 처음 산 장비로 첫 번째 캠핑을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내렸어요. 빗속에서 찼찼매고 있는 중에 캠핑장 사장님도 도와주셔서 간신히 텐트랑 타프를 칠 수 있었어요.

**캠핑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전준용 부장**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떠나보세요. 그렇게 캠핑의 맛을 알게 되고, 현지에서의 경험과 주변 캠퍼들의 조언을 통해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들을 하나씩 갖추면 됩니다.

**윤정일 과장** 동감합니다. 처음부터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려 하지 마세요. 주변 캠퍼들이 있다면 우선 의자만 먼저 구입한 뒤 그들과 함께 캠핑을 즐겨보기 바랍니다. 이후 자기 입맛에 맞는 장비들을 하나씩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1박이 부담이라면 저처럼 집과 가까운 곳에서 피크닉 삼아 당일치기 캠핑을 즐겨볼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효정 대리** 무턱대고 장비를 구입하기보다 예산을 먼저 책정한다면 충동구매도 줄일 수 있고 좋아요. 다만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제대로 준비하려다 보면 평생 못합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에는 달랑 차 안에 깔 매트만 사들고, 집에 있는 버너, 코펠, 손가락 같은 것만 챙겨서 나갔거든요. 몇 번 나가 보면 뭐가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조현택 대리** 저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영상을 먼저 챙겨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워낙 출중한 캠퍼들이 많아 따로 동영상 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만의 캠핑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전준용 부장**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 호주 캠핑카 여행도 떠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1년에 꼭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갈 생각입니다.

**윤정일 과장** 내년 3월이면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빨리 커서 온 가족이 즐겁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릴 줄 아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니까요. 무엇보다 사춘기가 오

기 전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황효정 대리** 캠핑을 하며 전국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지도에 있는 도시들을 모두가 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전국 각지의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명소도 찾아다니면서 구글 지도를 제가 다녀온 곳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싶어요.

**조현택 대리** 아이랑 둘이서 제주도 백패킹을 다녀오는 게 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물론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묵으면 몸은 편하겠지만 둘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도시에 살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 캠핑은 지쳤을 때 찾아가는 마음의 비상탈출구 ”

황효정 대리





## 이수AMC CS팀 긍정의 마음으로 똘똘 뭉친 막강 팀워크

이수AMC는 부동산 산업과 연관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다. 이수AMC CS팀은 이수AMC의 사업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업을 비롯해 시설물 유지관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의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긍정의 마음으로 똘똘 뭉친 막강 팀워크 4인의 이수AMC CS팀원들과 만나다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민엽 대리

김건호 차장

김락형 팀장

이규범 과장



이수AMC CS팀은 건축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수AMC CS(Customer Service)팀은 건축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 및 이에 제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 서비스 팀이다. 따라서 이수AMC CS팀의 업무는 건축물의 시공이 완료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 및 보강하여 건설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 이와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이수AMC CS팀은 건축공사업 및 시설물, 설비 공사의 민간영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특화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간수주 영업에 필요한 가예산 편성과 입찰, 시공관리, 준공후 AS업무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힘들지만 보람도 느껴

CS(Customer Service) 업무는 그 특성상 고객에 대한 세심한 파악을 밑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발주처와의 협상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팀원들은 하자 발생 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능력도 요구된다. 신규 혹은 신사업을 진행할 경우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추진에





CS 업무는 그 특성상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다



업무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팀원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실천 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한마디로 부동산 산업 CS계의 팔방미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쉽지 않은 업무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다. 이수AMC CS팀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옥상방수 보수 의뢰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점검한 뒤 현장에 적합한 보수공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꼼꼼하게 대응한 결과, 향후 재건축 관련 수주까지 연계될 정도로 상호 신뢰가 쌓였다.

CS 업무의 특성상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경기도 소재의 브라운스톤 아파트 현장이 바로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긴급전화가 접수되었는데 주말의 매우 이른 시간임에도 담당

자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 순회팀을 출동시킨 것이 주효했다. 현장을 방문한 순회팀이 누수를 긴급 처리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 확산이 방지되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매우 컸다는 전언이다. 이렇듯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 때면 팀원들 모두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 민첩한 대응과 순차적 업무 진행이 관건

필연적으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다발성 하자에 대한 순차적 업무진행 그리고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감은 이수AMC CS팀의 숙명과 같다.

앞서 예를 들었던 두 가지 케이스처럼 CS팀은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고 많은 현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럴 때는 한정된 인적자원을 활용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

제 해결의 가장 훌륭한 지름길이다.

그래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들은 팀워크로 뭉쳐 해결해 나간다.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AMC CS팀은 팀원들 간 시너지효과가 대단히 높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으로 각 담당자들 사이의 소통 및 업무 공유 역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팀 내 분위기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빠른 결과물 도출로 납기를 준수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각자 맡은 일에 대한 팀원들의 자부심 또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수정예로 민간 영업업무까지 병행하는 터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으며 자기계발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 이수AMC CS팀을 도약시키는 힘은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

이수AMC CS팀은 올해 상반기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문교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등 실적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민간 입찰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출동 운영으로 고객 만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고객 감동에 필요한 전문화된 매뉴얼 구축 및 긴급출동 서비스 강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수건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하여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축공사업 관련 신규수주도 준비하고 있다.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로 대화를 이어가던 김락형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팀을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기심을 가진다면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노력과 업무의 가치 향상 그리고 실천을 통한 자기 계발 및 성취감으로 기업은 물론 본인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부터 김건호 차장, 김락형 팀장, 나만엽 대리, 이규범 과장

이수AMC CS팀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공공 및 민간영업 수주 확대를 목표로 건축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1차 실적 확보를 통해 향후 성장 모멘텀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차 건설 컨설팅으로 차별화를 이루어 고객 만족을 넘어 최

상의 이익으로 회사에 기여하고자 분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해가는 팀이 되기 위하여 4명의 팀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Leader's Message

김락형 팀장(이수AMC CS팀)



항상 낮은 자세로 고객을 대하는 CS 업무는 필연적으로 스트레스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호기심을 발휘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또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바꾸는 법입니다. 팀장인 저 또한 처해진 환경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에 의한 관찰자로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하지 않던가요' 여가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하여 앞으로 변화될 사회를 이끄는 팀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 이수스타그램



이효은 사원(이수엑사보드 영업파트)



### 반려견과 함께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얼마 전에 12년 정도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앞으로 살날이 별로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껏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나름대로는 잘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강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들더군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싶어서 집 근처 공원에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별게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려견 #우행시 #공원 #아름다운 #추억





이준경 사원(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 맨발로 걸으며 만끽한 소확행!

보고 걷고 즐기는 축제! '오감만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경 맨발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참여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문경으로 향했어요. 맨발 페스티벌은 문경새재 1관문에서 2관문까지 왕복 7km 거리를 맨발로 걷는 트래킹 행사인데요. 처음 도전해보는 터라 행어나 발이 아플까 걱정도 됐지만 비온 뒤 촉촉해진 황토길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또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보니 절로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과 자연, 온전히 이 두 가지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이 거야말로 소·확·행 아닐까요?

#오감만족 #소확행 #문경새재 #가족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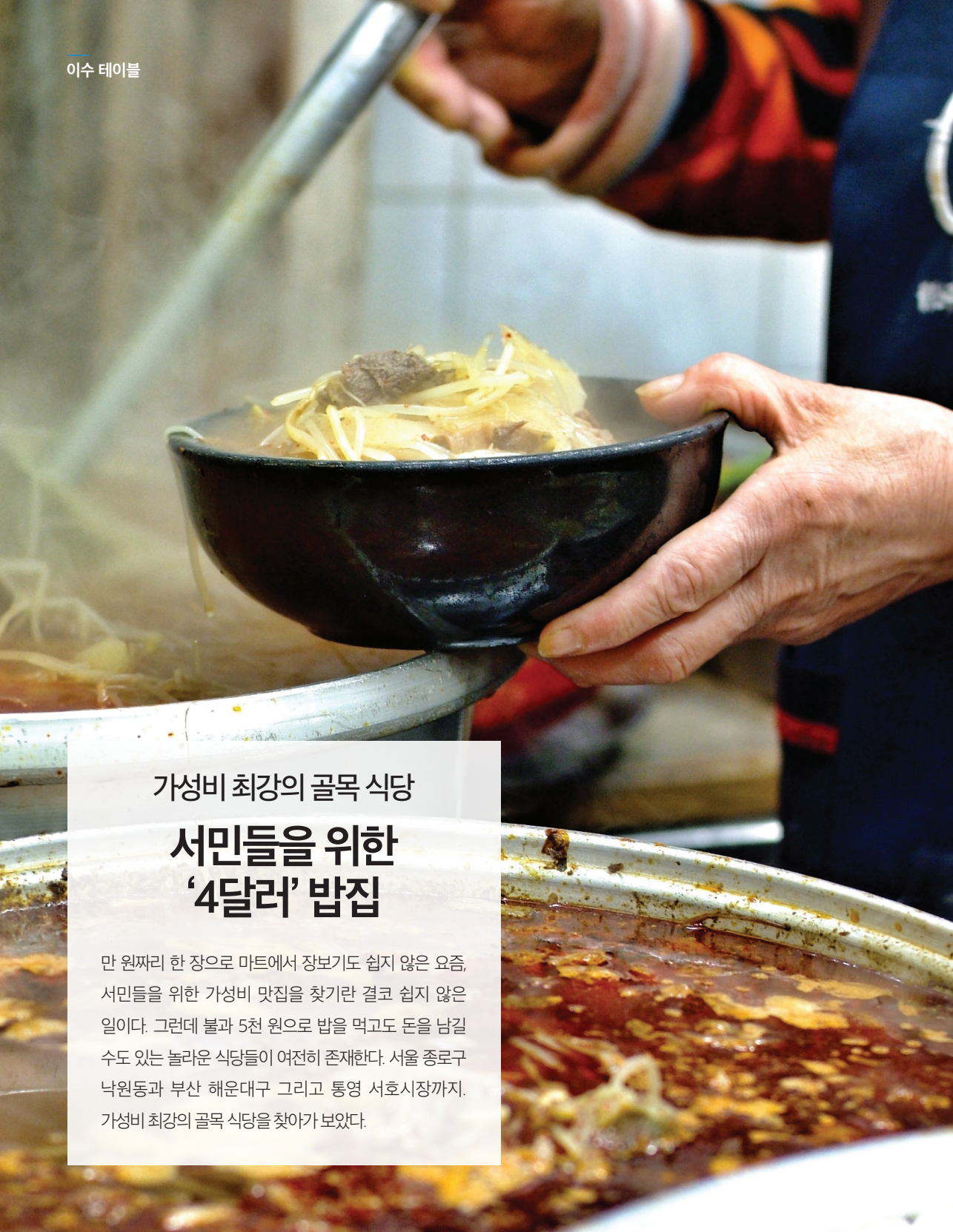
####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lhg764 / 이메일 : hongk411@isu.co.kr

OUT  
SIDE







## 가성비 최강의 골목 식당 서민들을 위한 '4달러' 밥집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마트에서 장보기도 쉽지 않은 요즘, 서민들을 위한 가성비 맛집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불과 5천 원으로 밥을 먹고도 돈을 남길 수도 있는 놀라운 식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과 부산 해운대구 그리고 통영 서호시장까지. 가성비 최강의 골목 식당을 찾아가 보았다.



### 64년 전통의 2천 원짜리 국밥집 아시나요?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복잡복잡한 동네인 종로구 일대에는 힙스터들의 성지로 불리는 익선동과 국제적 관광지 인사동 그리고 노인들의 쉼터인 탑골공원 등이 위치한다. 반짝이는 청춘들로 가득한 익선동에서 조금만 비켜서면 구깃구깃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버텼을 낙원상가가 우뚝 서있다. 1969년 완공된 반백 살의 낙원상가 바로 옆 골목은 '락희거리'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골목은 수십 년째 한 자리를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 노포(老舖)들이 어깨를 맞대고 오순도순 물려있는 맛의 거리이기도 하다. 국밥에서 평양냉면까지 먹거리의 스펙트럼이 넓을 뿐 아니라 가격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저렴해서 탑골공원의 노인들은 물론 첫 차를 기다리며 해장하려는 젊은 층까지 락희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낙원상가와 붙어있는 골목 입구에는 이 거리의 터주대감인 '소문난집'이 자리하고 있다. 1955년에 문을 연 이 집은 방송인 송해 씨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메뉴는 우거지얼큰탕과 해장국 단 두 가지에 불과하지만 무려 2천 원이라는 믿지 못할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64년 전 처음으로



불과 2천 원이면 국밥을 먹을 수 있는 낙원동 골목

문을 열었을 당시 350원에 팔던 국밥이 지금은 대략 6배의 가격으로 올랐지만 서울 하늘 아래 어디를 가도 가당키나 한 금액이던가.



### 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낙원동 풍경

소문난집을 비롯해 고향집, 낙원순대국, 유진식당 등 락희거리에 자리 잡은 식당들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국밥과 함께 테이블에 올라오는 반찬 이라야 깍두기나 배추김치 한두 가지가 전부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에게는 이만한 성찬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과 4천 원에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이발소와 도무지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은 허름한 노래방 그리고 옛날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 넣은 벽화까지. 아직도 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골목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골목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우측에 낙원순대국, 왼편에 고향집이 있다. 고향집은 소문난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뉴가 다양하다. 선지해장국, 순두부, 버섯콩나물국밥 외에 계절 메뉴로 냉면과 콩국수도 팔고 있다. 거기다 오징어와 제육볶음, 부추전, 도토리묵 등 안주거리까지 더하면 메뉴 가짓수는 10개가 넘는다. 점심때 식사를 겸해 술상을 차리는 모습은 여기서 아주 흔한 풍경. 국밥 삼총사가 2천5백 원인데 두부와 계란후라이가 각각 2천 원이라니 어쩐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마저 든다.

### 부산 소고기국밥과 통영 시락국

가파른 물가 상승률은 남쪽 지방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10여 년 전 3천 원 하던 부산의 명물 소고기국밥은 가격이 두 배로 뽕충 뛰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명성의 관광지인 해운대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소고기국밥은 여전히 먹을 만하다. 해운대구 중동의 시내버스 종점 골목에는 60년



1955년에 개업한 낙원동의 터주대감 소문난집

이 넘은 전통의 국밥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1960년대 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던 소고기 국밥집들이 이 거리의 시초. 소고기를 우려낸 맑은 국물에 콩나물과 무, 파 등을 넣고 칼칼하게 양념한 국밥은 얼큰하면서도 맛이 깔끔하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요즘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과 여름 피서철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국밥을 맛보려고 이곳을 찾는다. 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남 통영에도 수십 년째 국밥을 말아 팔고 있는 집이 있다. 동피랑벽화마을 인근, 서호시장의 비좁은 골목에 위치하는 원조시락국이 그곳이다. 시락국이란 시래깃국의 지역 방언. 된장을 풀어 끓인 국물에 무청을 말린 시래기를 듬뿍 넣어 끓이면 통영의 토속 먹거리 시락국이 탄생한다. 반찬을 뷔페처럼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테이블 형태가 독특하다. 처음 이곳을 찾은 사람이라면 어리둥절 하는 경우가 많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요즘, 점심시간에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식사 한 끼 제대로 먹기도 빠듯하다. 천 원이면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었던 가게들도 거의 사라지고, 냉면 물가는 어느덧 한 그릇에 만원을 훌쩍 넘겨버렸다. 게다가 대표적인 서민들의 음식인 짜장면도 6~7천 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데 요즘도 5천 원 미만에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음식은 사람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소박한 마음은 어쩌면 서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일지 모른다.



통영 서호시장의 원조시락국



부산 해운대의 명물 소고기국밥거리





## 병맛의 반란, 대중을 매료시킨 B급 문화의 힘

'가볍다'는 표현은 그간 무언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무겁고 깊이가 있는 것이 A급이라면, 가볍고 깊이가 없는 것은 B급으로

치부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바로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한 대중의 공감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영향력이 A급을 압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글\_ 정덕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라는 곡이 처음 나왔을 때 대중들은 열광했다. 잉여의 삶을 살아가는 청춘의 단상을 가사에 녹여낸 이 곡을 부른 장기하와 얼굴들은 가요의 메인 스트림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흥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디 밴드로서의 비주류적인 삶을 음악으로 노래했다. 예컨대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짝 달라 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속 지나가도'와 같은 가사가 담아내는 비주류의 삶은 랩인지 읊조림인지 알 수 없는 노랫말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B급의 환경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상황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한 몇 년 간 세숫대야에 고여 있는 물' 같고 어느새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모르는 상황. 싸구려 커피는 바로 그들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상징한다.

### 대중들은 어쩌서 싸구려 커피에 매료됐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이 B급 노래에 청춘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 메인 스트림에서나 느낄 수 있을, 이른바 에스프레소처럼 강렬하고 카푸치노처럼 우아하며 세련된 노래들 속에서 '싸구려 커피'는 제목은 물론 가사와 멜로디까지 고상한 척 하지 않는 적나라함이 매력이었다. 달달한 판타지로 포장된 당의를 벗겨내고 현실적인 실체를 끄집어낸 것. 결론적으로 싸구려 커피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까닭은 필연적으로 '불황의 그늘'과 '키치적



B급 문화는 한국 대중 음악의 새로운 경향이다.

정서'의 공통분모를 파고든 절묘한 비주류적 감성 덕분이다. 여기에는 장기불황에 직면한 청춘들의 초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게다가 불황의 정서는 청춘만의 전유물이 아닌 중장년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이제 싸구려 취급받는 자신들이 수준 낮은 싸구려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싸구려 커피를 마시지만 이런 감성들을 노래하고 세태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 'B급이지만 그게 뭐 어때서'라는 키치적 정서가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바로 B급 문화는 점점 많은 대중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른바 A급이라 불리는 문화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 주류 문화를 뒤엎은 병맛의 반란

'병신 같은 맛'의 약자인 '병맛'이라는 신조어는 기존의 주류 사회가 가진 질서를 파괴하는 코드로 등장했다. B급 문화를 대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www.dcsinside.com)를 통해 연





기승전병이라는 신조어는 웹툰에서 비롯됐다.

재됐던 '무악공고'라는 유저의 기괴한 웹툰이 병맛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무악공고는 도무지 만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그림체와 극단적인 대사 그리고 개연성 없는 전개 등으로 전통적인 서사구조를 무참히 깨부순다. 기승전결 없이 흘러가는 이야기 작법은 심지어 '기승전병'이라는 말을 탄생시킬 정도로 회자됐고 이후 수많은 병맛 웹툰 작가들이 데뷔했다. 이렇게 탄생한 이른바 병맛 웹툰 작가들은 기본이 탄탄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법 파괴를 시도함으로써 병맛을 대중적 반열로 끌어올렸다. <마음의 소리>의 조석, <이말년 시리즈>의 이말년, <정열맨>의 귀귀 등이 초창기 병맛 웹툰의 기틀을 다졌고, 이후 <패션왕>(기안84), <미숙한 친구는 G구인>(최뽕뽕) 등이 병맛 웹툰을 선도했다.

웹툰의 병맛이 내포한 웃음 코드는 코미디로 파급

되기에 이른다. 이른바 '병맛 개그'라는 것이 KBS <개그콘서트>나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주요 소재로 떠올랐다. 허무함을 무기로 장착한 병맛 캐릭터들이 이들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거 등장했고, <코미디 빅리그>에는 아예 '병맛'을 타이틀에 내걸고 '병맛 대소동'이라는 코너까지 생겼다. 병맛은 이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코미디 코드로 자리매김했다. 그 가장 단적인 예가 <극한직업> 같은 영화의 탄생이다. 무려 1,600만 관객이 보고 간 <극한직업>은 범인을 잡기 위해 치킨집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형사들의 이야기. 엉뚱하게도 치킨집이 대박 나면서 종잡을 수 없는 병맛 전개가 극적 묘미를 제대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B급 감성으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싸이



오래된 비닐 레코드와 같은 B급 코드가 문화계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강남스타일이 보여준 B급 문화의 가능성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B급 문화의 감성이 글로벌한 공감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각종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강남스타일'은 사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던 노래는 아니다. B급 문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음악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의도는 한 줌도 없었다. 압도적인 비주얼로 반전의 쾌감을 주는 싸이 특유의 에너지가 넘치는 춤과 끼, 독특한 안무와 엽기적인 가사까지 더한 무대를 선보여온, B급 코드를 장착한 싸이라는 가수가 있었고, 그가 '강남스타일'을 내놨을 뿐이었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SNS 환경뿐이었지만 그것은 실로 대

단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유튜브를 타고 그 우스꽝스러운 춤이 화제가 되더니 팝의 본토인 미국에서까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마침 '강남스타일'이 나오던 2012년이라는 시기는 국내에서 B급 코드와 정서들이 대중들의 호응과 공감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싸이 특유의 퍼포먼스와 B급 코드까지. 이러한 제반조건들이 SNS 환경과 맞물리면서 글로벌한 열풍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B급 문화의 열풍은 크레용팝이라는 걸그룹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머리에 헬멧을 뒤집어쓰고 학생복을 연상시키는 스커트에 트레이닝복을 받쳐 입고는 개다리춤을 추는 이 엉뚱한 걸그룹은 2013년 갑자기 등장해 직렬5기통춤으로 열풍을 일으





B급 문화는 심지어 충주시청 같은 공공기관의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켰고, 빌보드닷컴은 “크레용팝이 제2의 싸이가 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였다. 마침내 이들은 2014년에 레이디 가가의 북미투어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러한 열풍은 B급 문화의 힘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섹시와 큐티 콘셉트의 엇비슷한 걸그룹들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되던 틀을 깨고 ‘B급’ 걸그룹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 프로를 압도하는 아마추어리즘

B급 문화의 두드러지는 경향은 ‘아마추어리즘’이다. 물론 이러한 아마추어리즘이 질 낮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프로 수준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시대이기 때문. 그들은 주류에 속하지 않지만 그 질적인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개그맨 유세윤과 가수이자 DJ인 뮤지가 결성한 ‘유비(UV)’ 혹은 ‘형돈이와 대준이’ 같은 이른바 개가수(개그맨+가수)들을 보면 B급 정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노래의 수준이 B급이라 말하긴 어렵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음악을 통해 B급 문화와 정서를 담은 노래들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아마추어리즘이 프로페셔널리즘을 압도하게 된 건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대중 정서의 영향이 크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독점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번두리를 전전하던 비주류들은 이제 아마추어리즘을 무기로 장착



요즘 주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번두리를 전전하던 비주류들이다.

한 채 주류시장을 공략할 뿐 아니라 때때로 그것이 주류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문화비평가이자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은 1960년대에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이렇게 논했다. “프로페셔널리즘은 환경의 소산이다. 그러나 아마추어리즘은 반환경적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은 개인을 총체적인 환경의 유형으로 흡수한다. 이에 반해 아마추어리즘은 개인의 총체적 자각과 사회법칙에 대한 비판적 자각의 발전을 도모한다. (중략) 전문가란 제자리에서 계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맥루한은 그 당시 이미 시스템에 함몰되어 오로지 시스템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들의 몰락을 예

견했던 셈이다. 프로페셔널리즘이 결국에는 그 시스템에 가장 잘 복종하는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아마추어리즘은 시스템 바깥에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마추어리즘의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대중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진지한 무거움보다 가벼움이 낮게 취급받지 않으며, B급이 서열의 하위에 위치하지도 않는다. B급이니, 병맛이니 하는 표현들도 그저 수많은 다양한 취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시대, 마침내 하위 문화가 주류를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 인생샷 득템, 여행은 사진이다! 인스타그램머블 트래블 스팟

인스타그램 세대에게 여행은 사진을 남기기 위한 행위다. 인생샷을 득템할 수 없다면 떠나야 할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가오슝에서 발견한 예술가들의 아틀리에,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힛트랑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나트랑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증샷을 남겨줄 인스타그램머블 스팟 세 곳으로 안내한다.  
글 류재민 (여행작가)

*instagrammable*



예술가들의 아틀리에를 산책하다

## 타이완 가오슝

Kao-hsiung, TAIWAN



국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타이완 흑당 버블티

섬나라의 서남부에 위치하는 가오슝(高雄)은 타이완 제2의 도시로 해양 교통의 허브이자 공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시내 중심부에는 가오슝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85스카이라워를 비롯해 세계무역센터 등의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어 서구의 여느 메트로폴리스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미래적 풍경을 뽐내고 있다.

한편 가오슝의 바닷가에는 항구도시 특유의 정취와 함께 근대기에 지어졌던 창고군인 보얼예술특구, 유람선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아이허강, 워런부두, 전하이부두, 치진풍차 공원을 중심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얼예술특구(駁二藝術特區)의 경우 케이블 채널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더 잔내투어>를 통해 방영되면서 한국인 여행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가오슝항 제2부두 일대의 버려진 창고들을 개보수한 이 곳에 예술가들이 입주하고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예술특구로 지정되었고 썰렁했던 풍경에도 활기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요즘은 인증샷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85스카이라워



보얼예술특구





**보얼예술특구**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창고군을 개조한 점,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독특한 조형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의 인천아트플랫폼과 여러모로 비슷한 구석이 많은 예술지대다. 물론 보얼예술특구는 2000년에 시작되었으므로 그 시기는 인천아트플랫폼에 비해 10여년 이상 앞선다.



**아이허강 유람선**

가오슝 시내를 관통하며 흘러 전아이부두에서 바다와 만나는 아이허강은 휘황한 도심의 야경을 감상하는 유람선 투어로 유명하다. 아이허강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강변 풍경을 즐기며 걷기에도 좋다. 아이허 친수공원에 조성된 'LOVE' 조형물 앞에서 인증샷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85스카이다워**

가오슝 항만을 포함해 시내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가오슝 최고의 전망대로 그 이름처럼 85층, 높이 348m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마천루 타이베이101이 완공된 이후에 최고(最高) 기록을 깨졌지만 가오슝 앞바다까지 훤히 내다보이는 탁 트인 시야만큼은 타이완의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조망권을 자랑한다.



**리우허 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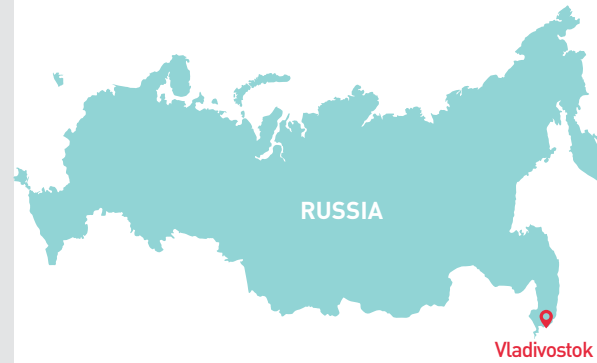
중화권 국가를 여행할 때 결코 거를 수 없는 여행 스팟이 바로 야시장이다. 현지인들에 섞여 복작이는 야시장을 누비다 보면 로컬의 정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 해산물과 꼬치류, 열대과일 등 다양한 거리 음식과 함께 소소한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중인 흑당 버블티도 꼭 맛보도록 하자.



비행기로 2시간,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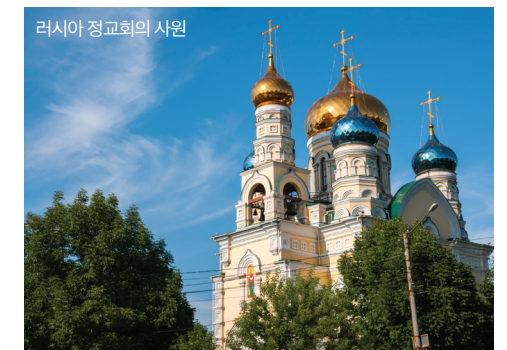
않을 수 없는 포토존이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겨울이 길고 춥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1월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므로 추위가 싫다면 10월 중에 여행을 다녀오기를 권한다. 또한 10월에 이미 늦가을 혹은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기 때문에 외투도 든든하게 챙겨가야 한다.

유럽은 누구나 한 번쯤 다녀오기를 꿈꾸는 버킷 리스트 속의 여행 스팟이지만 최장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과 만만치 않은 여행 경비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럴 때는 요즘 뜨는 여행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보자. 블라디보스토크는 프로 여행러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불리는데, 그야말로 핫한 여행 스팟으로 가장 저렴한 때는 10만원 이하에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한국 여행자들에게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블라디보스토크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태평양 해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다. 아름다운 돛형 지붕이 인상적인 러시아 정교회 사원 특유의 건축양식과 유럽풍 건물들은 인증샷 욕심을 내지



아르바트거리



러시아 정교회의 사원



**독수리 전망대와 금각교**

대부분의 한국인 여행자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최애 인증샷 장소. 황금의 뿔이라고 불리는 금각만 위에 세워진 금각교가 사뭇 장중한 풍경을 선사한다. 금각교와 금각만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독수리 전망대를 찾아가야 한다. 현지인들이 웨딩 촬영장소로 애용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아르바트거리**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거리로 맛집과 카페들이 오밀조밀 몰려 있다. 문화의 거리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짠내투어>의 멤버들 역시 이곳에서 즉석 버스킹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르바트거리는 구 아르바트와 신 아르바트로 구분되는데 여행자들이 소개하는 명소들은 대부분 구 아르바트거리에 몰려 있다.



**해양공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의 하나로 바닷가에 위치한 아담한 놀이공원에 관람차와 오리배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국적인 풍경은 기대해도 좋지만 놀이기구의 종류가 적고 관람차의 경우 창이 없는 뺑뚱이 구조이므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도록. 해양공원 내 킥클럽과 새우를 파는 집이 유명하다.



**중앙광장**

블라디보스토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광장. 러시아의 국민가수 비소츠키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스피커를 통해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광장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동상을 비롯해 많은 동상들을 볼 수 있다. 우체국 건물을 비롯해 잠수함 박물관, 국영 백화점인 블라디보스토크 굼, 니콜라이 개선문 등이 주요 볼거리다.



인도차이나 남동쪽 해변의 힙 플레이스

**베트남 나트랑**

Nha Trang, VIETNAM

VIETNAM

Nha Trang

인도차이나반도 끝자락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나트랑은 다낭과 푸꾸옥 등지에 이어 새로이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다. 다낭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한가한 휴양지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게다가 국내 저가항공이 취항하면서 나트랑을 찾는 여행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관광지임을 감안해도 물가가 낮은 편이며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고급 호텔과 리조트까지 숙박시설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19세기 프랑스에 점령당했던 시기를 거치면서 나트랑 곳곳에는 프랑스풍 건물도 제법 많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8세기 고대 나트랑에 세워진 참파 왕국의 힌두사원 '쁘나가 참 탑'을 비롯해 담시장, 나트랑 대성당 등 다양한 문화권이 뒤섞여 있는 독특한 풍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어 더욱 좋다. 물론 휴양지인 만큼 해변에서 오롯이 즐기는 휴식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무려 6km에 이르는 새하얀 모래가 깔린 해변은 유난히도 깨끗하고 아름다워 베트남 현지인들도 즐겨 찾고 있다.



나트랑의 눈부신 해변 풍경



쁘나가 참 탑





**나트랑 보트투어**

베스트 셀러 여행상품은 나트랑의 해변을 배로 둘러 보는 보트투어다. 보트투어는 나트랑 앞바다의 섬들을 돌아보고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긴 뒤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일정이다. 스노클링을 하는 중에 맥주가 제공되기도 한다. 투어 전날 혹은 당일 아침 일찍 나트랑 시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되고 투어 소요시간은 왕복으로 약 2~3시간 정도다.



**담 시장**

나트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으로 마치 검투사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둥근 원형의 건물을 중심으로 각종 건어물을 비롯해 과일, 채소 등을 파는 노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라탄 소재의 가방, 바구니 등의 소품들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뽀나가 참 탐**

8세기에 나트랑을 지배했던 참파왕국의 힌두교 사원으로 이름 앞에 붙은 '뽀나가(Po Nagar)'라는 단어는 10개의 팔을 가진 참족 여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사원 안에서 바로 이 여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힌두교 사원이지만 현재는 불교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불교신자들이 이곳을 찾아 불공을 드리고 있다.



**나트랑 대성당**

프랑스 점령기에 세워진 고딕 양식의 건물로 나지막한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전망도 좋은 편이다. 실내에는 천장까지 길게 이어진 창문이 스타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어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아침과 늦은 오후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마치 중세의 유럽 어딘가로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국적인 성당의 모습을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오도록 하자.

# 팝음악의 본고장 미국, K팝의 최대 격전지가 되다

## 방탄소년단이 만든 K팝의 새로운 풍경들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한 성공은 K팝 진영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던 K팝의 영역이 이제는 팝의 본토 미국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글\_윤선아(대중문화칼럼니스트)







방탄소년단의 미국 뉴욕 공연 현장



대형 사진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해외 팬들



방탄소년단 유럽 투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선 현지 팬들

**방탄소년단이 쏘아올린 작은 공, K팝의 전장을 바꾸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을 잡고 이른바 SM 어벤져스팀 '슈퍼엠(Super M)'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슈퍼엠은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백현과 카이, NCT127의 태용과 마크 그리고 WayV의 루카스와 텐 등 7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팀이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지난 8월 7일 미국 LA에서 열린 '캐피톨 콩그레스'에서 "CMG 스티브 바넷 회장으로부터 동서양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팀 프로듀싱을 부탁받았다"며 "슈퍼엠은 차원이 다른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가 아닌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현지 기획

사와 협업을 통해 K팝 아이돌 그룹을 런칭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SM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여러모로 방탄소년단(BTS)이 만들어낸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K팝이 해외에 점점 하나의 장르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이나 슈퍼주니어, 샤이니 같은 보이그룹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유럽과 남미까지 알려지던 2010년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파리에서 열린 'SM 타운'은 그래서 꽤 상징성이 있는 행사였다. 이듬해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말 그대로 전 세계 음악시장을 강타했다. K팝이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미국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라는 성과는 새로운

장벽 하나를 허문 것과 다름없는 놀라운 성과였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우리말 가사를 가진 노래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K팝 진영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낸 뮤지션은 단연 방탄소년단이다. 물론 그간의 K팝이 일궈온 성과에 기반한 것이지만, 방탄소년단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전 세계에 아미(Army)라는 엄청난 팬덤을 가진 K팝 아이돌 그룹이 되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글로벌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이후 싸이가 연달아 낸 곡들이 큰 반응을 얻지 못했던 반면, 방탄소년단은 곡이 아닌 팬덤 자체를 가짐으로써 지속가능한 K팝의 흐름을 만들었다. '21세기 비틀즈'라고 불릴 정도의 글로벌 팬덤

을 구축해냈다는 사실은 국내의 대형 기획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SM이 미국 본토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과에 자극을 받은 한국 3대 기획사들이 공고히 구축해온 위상마저 흔들리는 위기감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방탄소년단과 슈퍼M이 맞붙게 되면서 팝의 본토가 K팝의 전장이 되게 된 것이다.

**빅히트의 확장이 말해주는 국내 기획사들의 긴장감**  
 지난 8월 21일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는 상반기에 이미 2,000억 원



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매출액은 빅히트의 지난해 연간 매출과 맞먹는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391억 원으로 지난해 641억 원의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다. 빅히트의 급성장은 국내 3대 기획사로 불리는 SM,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그리고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장악하고 있던 판세를 뒤집고 있다. 매출규모로 보아도 같은 기간 YG가 1,428억 원, JYP는 655억 원이다. 이미 빅히트가 두 기획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 SM의 경우 2,904억으로 빅히트에 비해 매출총액은 높지만 영업이익은 67억 원 뒤쳐져 있다. 빅히트가 3대 기획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빅히트의 급성장은 글로벌하게 팔려나간 음원과 음반은 물론이고, 오픈하자마자 매진되어 버린 월드투어 티켓을 비롯해 콘서트, MD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단 하나의 아이돌 그룹의 성과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빅히트가 가진 위험소이기도 하다. 향후 제2의 방탄소년단을 선보이지 못하면 자칫 기획사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탄소년단의 성공으로 인해 빅히트는 확실하고도 새로운 K팝의 로드맵을 갖게 되었다. BTS를 잇는 빅히트의 차세대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는 그 시작점이 국내가 아닌 미국이었다. 미국 6개 도시에서 쇼 케이스를 개최한 TXT는 방탄소년단의 후광을 입고 화려하게 데뷔해 '글로벌 슈퍼 루키'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기획사들이 미국시



블랙핑크를 비롯한 다수의 K팝 아이돌이 속속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장을 K팝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 미국으로 걸잡하는 K팝 아이돌 그룹들

하지만 SM이 선보인 슈퍼엠은 방탄소년단과는 그 태생 자체가 다르다. 방탄소년단이 SNS를 기반으로 차츰차츰 글로벌 팬덤을 넓혀오며 현재에 다다랐다면, 슈퍼엠은 지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셈이다. SM과 협업하는 CMG는 유니버설 뮤직 산하의 레이블로 비틀즈, 케이티 페리, 샘 스미스 등이 소속되어 있다. 그간 SM이 해왔던 완성된 음악과 팀으로 음원을 발표하고 활동하는 한국의 방식을 미국 현지 레이블과 함께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화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선들이 존재하지만, 미국 현지 반응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미 K팝이 저변을 형성했을 뿐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인 스타쉽의 몬스타엑스

아니라 SM의 위상 또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들이 미국 레이블과 손을 잡고 펼치는 글로벌 프로젝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미국 진출은 SM만의 행보는 아니다. 최근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YG의 블랙핑크는 유니버설 산하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손을 잡았고, 스타쉽의 몬스타엑스 역시 소니뮤직의 에픽 레코드와 협업하고 있다. 블랙핑크는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가 2900만 명을 넘어섰고, 뮤직비디오 누적 조회수 역시 9억 뷰를 돌파할 만큼 글로벌한 영향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4대륙 23개국 도시에서 가진 월드투어 역시 32회 중 22회가 매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몬스타엑스는 미국 현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넓혀나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방송 출연으로 효과를 톡톡히 본 미국의 방송사들이 K팝 그룹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갖게 되면서 생긴 또 다른 흐름이다.

이밖에도 JYP의 스테레이키즈 역시 미국에서 쇼 케이스를 가졌고, KQ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중소 규모의 기획사도 소속 그룹인 에이티즈가 소니뮤직 산하 RCA 레코드와 계약을 맺는 성과를 이뤘다. K팝의 방향성은 이제 확고해졌다. 팝의 본진으로 들어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 방탄소년단이 홀로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K팝 진영의 아이돌이 걷는 새로운 길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 K팝의 미국 본토 공략과 미국 시장의 변화

그렇다면 K팝은 어떻게 이같은 글로벌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K팝이 가진 뚜렷한 경쟁력, 이를테면 아이돌 그룹의 남다른 퍼포먼스에 팝과 한국적 색채가 없어서 보편적이지만 차별성을 지닌 음악 같은 요소들의 조합이 만든 힘이다. 초기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져나간 '칼



K팝의 위상은 미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군무' 같은 언버벌 퍼포먼스에 대한 입소문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형성된 인기가 점차 팬덤화되면서 음악은 물론 가사로 그 관심이 옮겨간 바 있다.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들 스스로 갖춘 실력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그러한 팬덤도 가능했다는 뜻이다.

K팝이 미국 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점점 다국적, 다문화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백인 중심의 문화 소비가 한계에 이르렀고, 음악 또한 새로움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국적과 다른 문화를 찾기 시작했다. 최근의 빌보드 차트를 들여다보면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Havana)'처럼 남미계 가수의 곡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백인 중심의 팝 시장이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인도나 남미 등 새로운 문화를 담은 음악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다.

K팝의 위상이 높아지기 전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아시아권 음악은 일본의 J팝이었다. 하지만 K팝이 점점 J팝을 압도하면서 그 시장을 대체했고, 이제는 아시아권 음악을 대변하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 시장 내의 새로운 수요와 그에 따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K팝의 경쟁력과 함께 글로벌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 같은 시상식 자리에 오르고, 미국의 주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미국에서의 콘서트가 연일 매진을 기록하는 행보를 보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K팝이 넘을 수 없는 어떤 곳이라는 인식은 바뀌고 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을 통해야 글로벌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 미국 음악시장이 K팝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 귀담아 듣는 독자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우 및 가족들의 많은엽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엽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일러 하는 사람들의 알쏭달쏭한 심리

여름호에서는 '스포일러와 전쟁'이라는 기사를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기억도 까마득한 <식스센스>나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영화와 최신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현상을 비교할 수 있으니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스포일러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 수 있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김주연 님(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김영관 과장 배우자)



## 제주도 한 달 살기 실천하고 싶어요~

제주에서 한 달 살기가 연휴를 맞아 딱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이면서도 해외 같은 이국적인 풍경이 너무 맘에 들어거든요. 저도 오래 전부터 어딘가로 떠나 한 달 살기를 실천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 유익했습니다. 제주 번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네요.

김영선 님(이수화장 배우자(이수페타시스 AO))



## 함정 퀴즈가 가장 재밌습니다!

사연과 문제를 읽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어 항상 음부즈맨과 퀴즈 코너를 즐겨 읽고 있어요. 이번 퀴즈는 중간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재밌는 함정까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정답을 놓칠 수 있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 퀴즈를 자주 내주셨으면 합니다!!

김예현 님(이수화학 재경팀 김승중 상무 자녀)



## 을지로3가를 실제로 다녀온 기본

평소에 많은 곳을 다녀 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기사입니다. 다행히 이수사보의 여행과 맛집 기사를 통해 대리 만족할 수 있어 정말 기뻐요. 가보지 못한 곳을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거든요. 마치 내가 실제로 을지로의 골목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

설명수 님(이수화학 실험2파트 이원태 사원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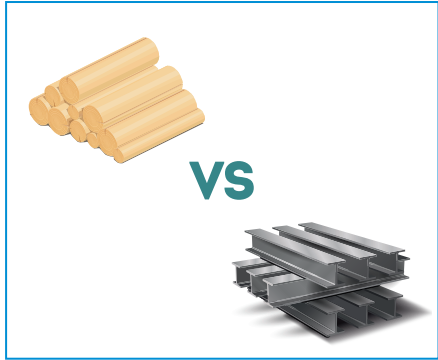


### 이수 뇌섹남녀를 위한 두뇌 트레이닝 QUIZ

※ 사보 <ISU>는 여러분의 창의력을 키워줄 퀴즈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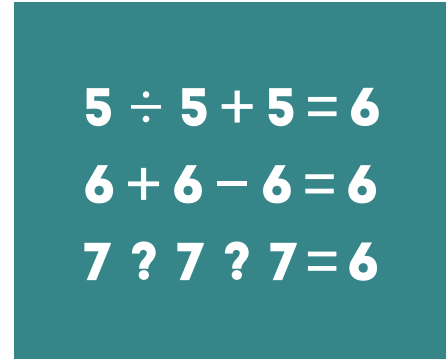
#### Level 1

10톤의 나무와 10톤의 강철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 Level 2

연산기호를 넣어 세 번째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시오.



\* 한 개의 퀴즈만 맞혀도 선물을 드립니다. 모두 함께 도전해보세요!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19년 여름호 당첨자

- 공정호 사원(㈜이수 경영지원팀)
- 최원규 사원(㈜이수 기획팀)
- 설명수 님(이수화학 실험2파트 이원태 사원 배우자)
- 조태종 사원(이수화학 연구기획팀)
- 이화우 님(이수화학 온산생산팀 박영철 기감 배우자)
- 김예현 님(이수화학 재경팀 김승중 상무 자녀)
- 백승윤 사원(이수화학 총무팀)
- 안정민 님(이수페타시스 적층2 안영태 기정 자녀)
- 김영신 선임기정 배우자님(이수페타시스 AOI)
- 한석호 님(이수건설 브라운스톤 하이포레 한성희 부장 자녀)
- 김주연 님(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김영관 과장 배우자)
- 원나빈 님(이수엑사보드 공무파트 원세훈 차장 자녀)

#### \* 여름호 정답

= 라이프 오브 파이	= 60
= 인터스텔라	= 40
= ?	= 26
겨울왕국	= ?

겨울왕국

42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겨울호 원고 마감은 11월 20일입니다.

# 두통남는 혼술말고 여운남는 혼책할까요?

### 미세먼지 가득한 요즘 파란책방과 3차까지 즐기는 방법

- 1차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여유롭게 책 즐기기
- 2차 책장에 안보는 책 찾기
- 3차 출근길에 파란책방에 기부하기

우리, 파란책방과 함께해요

**파란 책방** 파란책방은 이수 구성원들이 채워가는 즐거운 도서기부공간입니다.

파란책방의 새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여운남을 기다립니다



비체나 박스

지방 사업장은 기존대로 비체나 박스에 넣어주세요

기부문의 TEL : 02-590-6819 ㈜이수 브랜드전략팀 정현진 과장 e-mail : jerry\_hyunjin@isu.co.kr

